

### 3. 장시관행과 상거래풍속\*

#### 1) 조선후기의 경제변동

조선봉건왕조의 지배체제는 모든 부의 원천을 토지에만 한정하고, 상공업이나 수공업·광업 등을 통한 잉여산물의 형성을 철저히 저지하였다. 그러나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상공업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변화하였다. 그것은 15세기 이래로 간척지 개간사업과 농업기술의 발달, 수리시설 등이 개선되면서 농업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상공업 발달을 예고하고 있었다.

조선 초기 수공업은 봉건지배층의 일용품 제조에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임란 이후 수공업은 국역으로서 이행되어오던 관영수공업이 차츰 붕괴되고, 농촌의 부업적 가내수공업이 점차적으로 사영수공업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수공업 정책의 변화는 자영수공업자들이 그들만의 거주지인 수철점·옹점·유기점촌·사기점촌 등 점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공업 생산에서도 주문생산이 시도되어 수공업자에게 원료와 돈을 미리 지급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선대제나, 자본을 축적한 수공업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임금노동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한편 17세기 중엽 이후 화폐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교역이 활발하게 되자,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전국적으로 금·은·동의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른바 광산경영이 활성화되어 토지로부터 유리된 일부 농민들이 이에 종사하게 되었다. 조선왕조는 농업 노동력이 광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산개발 역시 금지하였다. 그러나 민간인들 사이에는 잠채(潛採)가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 조선왕조는 국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광산개발을 일반민에게 허용하였다.

특히 18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덕대(德大)라고 하는 자본가가 광산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광산을 경영하는 추세로 변화되어갔다. 이처럼 농업경제력의 전반적인 향상과 함께 수공업·광업 등의 발전은 일부 소농민들에게 재산축적을 가능케 하였고, 또 소량이나마 잉여산물은 교환경제를 성립시킴으로써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한 지방장시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5일장 제도의 시작으로서 지방향시 또는 장문이라 불렀다.

농촌의 장시운영은 부농·부민층인 경우 향촌장시보다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이용하는 반면, 소농민층은 향촌장시를 상대로 하여 공박판매를 하였다. 도시를 비롯한 부호층의 상품화폐화와 지주경영의 확대로 대규모 임노동자층이 형성되고, 몰락농민과 유이민은 상공업 중심지로 흡수되어갔다. 결과적으로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도시인구는 증가하여, 지주적 시장경제로 확대되었다.

장시운영은 대규모의 보부상 조직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주요 도읍에는 대시전(大市廛)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상품의 집산지인 지방장시에는 포구를 비롯한 교통의 요충지를 중심으로 점차 객주와 여각이 생겨나, 상인들을 위한 숙박과 상품의 도산매·위탁판매·운송업·금융업 등이 이루어졌다. 각 지역의 산물들은 대부분 보부상이라고 하는 상인집단들에 의하여 유통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보부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종류에 따라 보

\* 제4절 3항목은 김명수(金明洙) 집필임.

상과 부상으로 나뉘었다. 보상은 주로 고가인 잡화물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면서 행상하고, 부상은 조잡한 일용품에서부터 가내수공업 제품과 수산물 등을 등에 지고 다니며 상행위를 한다는 것에서 흔히 '장꾼'·'등짐장수'라 불렸다.

이들 보부상들은 산지 수집상과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각 지역으로 보급하여 이윤을 획득하였다.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시행한 대동법은 모든 세금의 금납화를 일반화시킴으로써, 종래 쌀이나 옷감 등과 같은 현물화폐를 상평통보라는 동전을 매개로 하여 상품유통이 이루어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는 이제 매일 상설시장이 열리고, 향촌에서도 한 지역에 10일 간격으로 개설되던 장시가 5일마다 열리게 되는 등 장시의 설립이 일반화되었다.

